

금요 양성 2025년 12월 12일

성 프란치스코의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오 안티폰 (응답송가)

성 프란치스코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를 읽어 본 적이 있다면, 그 찬미가 매년 12월 17일에 시작해서 대림시기 마지막 한주간동안 드리는 기도 '오 안티폰'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아 차렸을 것이다. 이 안티폰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성모의 노래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시편 76,15).

당신은 힘세시고, 위대하시며,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 (요한 17,11),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참조 마태 11,25).

당신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선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애정이시고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고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고, 아름다움이시며,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안전함이시며, 휴식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정의이시나이다.

당신은 절제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오며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수호자이시며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오며,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감미로움이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원자자이시여!

<https://www.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praises-of-god-and-the-blessing/125-fa-ed-1-page-109>

매일, 오 안티폰과 프란치스코의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글사이의 관계를 묵상해 보시오.

December 17: O Sapientia (*O Wisdom* 오 지혜이신 주님):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애정이시고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오며 아름다움이시고, 온화이시나이다....”

December 18: O Adonai (*O Lord* 오 주 하느님)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고, 위대하시며,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선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December 19: O Radix Jesse (*O Root of Jesse* 오 이사이의 뿌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안전함이시며, 휴식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정의이시나이다.
“당신은 절제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December 20: O Clavis David (*O Key of David* 오 다윗의 열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수호자이시며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힘이시나이다...”

December 21: O Oriens (*O Dayspring* 오 동방의 빛)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아름다움이시오며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오며,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December 22: O Rex Gentium (*O King of the Nations* 오 만백성의 임금)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 (요한 17,11).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참조 마태 11,25)..

December 23: O Emmanuel (*God is with us.* 오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감미로움이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원자이시여!”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위에 있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묵상을 향상시켜 봅시다.